



国立科学館은 민족의 발전과정을 상징하는 문화시설인 동시에 社会教育機關으로서 첫째로 과학기술에 관한 문화유산을 축적, 보존, 연구, 전수하여 科学技術立國의 전통을 확립하고, 둘째로 科学技術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인식을 제고하여 全国民生活의 과학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과학의 探究心을 배양하고 의욕을 고취시키는 현장실험 및 실습도장으로서 학생들의 校外 科学活動의 中心 広場으로

활용 발전시켜 과학기술 인구의 저변확대와 기반구축의 발판을 다짐과 동시에 전국민의 과학정신함양과 풍토조성의 본산으로 육성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 科学技術 展示普及

년간 약 40만~50만의 관람객이 내방하고 있는 상설전시관은 本館과 산업기술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本館에는 자연과학의 제원리와 기술의 응용을 위주로한 각분야에 걸친 200여 主題의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고,

산업기술관에는 우리나라의 7개 產業基地 模型과 重化学工業中 6개분야(鐵鋼, 機械, 化學, 電氣電子, 非鐵金屬, 造船)에 대한 20개 공장의 시설 및 설비모형과 제품의 생산공정등을 작동에 의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좌석수 약 300석의 영화관에는 매일 3~4회씩 과학기술에 관한 영화를 상영하여 과학기술의 지식보급과 흥미를 고취시키고 있다.

81년도에 신설 또는 보완한 전시시설물로서는 人類史上 최초로 우주왕복비행에 성공한 Columbia호의 歸還飛行을 계기로 바야흐로 우주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차제에 그동안 우리 인류가 우주개발에 도전한 발자취를 더듬어 봄과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우주시대의 무한한 꿈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을 주제로 한 발자취, 宇宙探査館, 宇宙船室의 模型을 제작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흥미롭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사진, 녹음, 作動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宇宙開發館 외에 인류의 진화과정을 實物 크기로 Diorama化 하여 그 생활의 변천, 지능의 발달, 형태의 진화등에 관한 전시품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그밖에 우리 조상의 슬기를 비롯한 30여 主題의 전시품을 정비보완하였다.

82년도에는 과학기술 전시보급사업에 관련된 시설로서 天體 및 宇宙科学에 관한 지식을 보급

하는 동시에 흥미를 유발케 하기 위하여 약 150석 규모의 Planetarium을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科学技術知識 보급 및 계몽

週末 또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公開科学教室, 어린이 과학동산, Computer교실등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잘 해보지 못하거나 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에 관한 여러가지 실험·실습과 工作物組立 및 제작 지도와 Micro Computer의 이용에 관한 기초 이론과 실기를 지도함으로서 학생들의 校外 과학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동 과정에 참가한 학생 또는 참가할려는 학생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81년도에 이 과정에 참가한 学生数는 6,4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또한 每週末에는 国内 科学技術界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과학강연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과학이야기 강좌등을 실시했는데 약 1만여명이 청강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82년도에도 同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특히 Computer 教室을 더욱 확장보완하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 科学展覽会 開催

科学技術 풍토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全国科学展覽会, 全国学生発明品競進大会를 비롯하여 기타 특별전람회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81년도에는 제28회 전국과학전과 제4회 전국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및 과학모형 및 완구 전시회를 실시하였다.

全国科学展覽会는 우수작에 대한 地方 巡迴展 示회도 겸하고 있는데 81년도에는 光州와 全州에서 지방전시회를 가졌으며, 同 과학전에 출품된 학생작품중 우수작 2작품을 선발하여

毎年 美國에서 개최되는 국제과학기술전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당 学生 및 指導教師를 함께 참가시키고 있으며, 또한 全国学生発明品競進大会에서 特賞으로 입선한 2名内外의 학생 및 지도교사에게도 美國, 日本 등 先進 科学技術館을 견학하게 하는 特典을 부여하고 있다.

同 사업도 더욱 활성화하여 금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특전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 할 계획이다.

◇ 総合科学館 建設計劃

현 国立科学館은 敷地의 규모가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시설의 구조 및 내용도 너무 빈약하고 부적합하여 내일을 바라보는 国内外의 여건 및 추세에 비추어 새로운 국립과학관의 건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따라 同 拡張建設事業을 위한 기본자료조사 및 그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금년도에는 国立総合科学館建設을 위한 Master Plan 을 작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事業期間(一次) : 1982~1986(第5次 5個事業期間)

○規模 : 敷地 2万坪, 建物(延) 1万坪

○主要施設 : 現代科学技術館, 自然史 및 科学博物館, 科学教育施設 및 其他 附帶施設

○候補敷地 : (예, 서울大公園등에 물색중)

이상에서 国立科学館의 82년도 주요사업 내용 및 계획을 소개하였는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다른 분야에 비하여 国立科学館은 아직도 그 시설 및 규모면에서 빈약성과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발전의 요체가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볼 때 과학기술입국의 불가피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과학관사업도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하나의 명제인 것이다.